

한국체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메타버스 도서관 개관



3월 17일,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러리 1층 야외광장에서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미래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개관식에는 학내구성원 50여 명, 초청인사 20여 명, 사업시행사 6명으로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도

서관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 최초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을 융합한 메타버스 체형 도서관에 많은 기대를 안고 학내 구성원과 내빈들이 개관을 축하했다. 안용규 총장은 기념사에서 “김성조 전 총장과 박채희 학술정보원장이 도서관 건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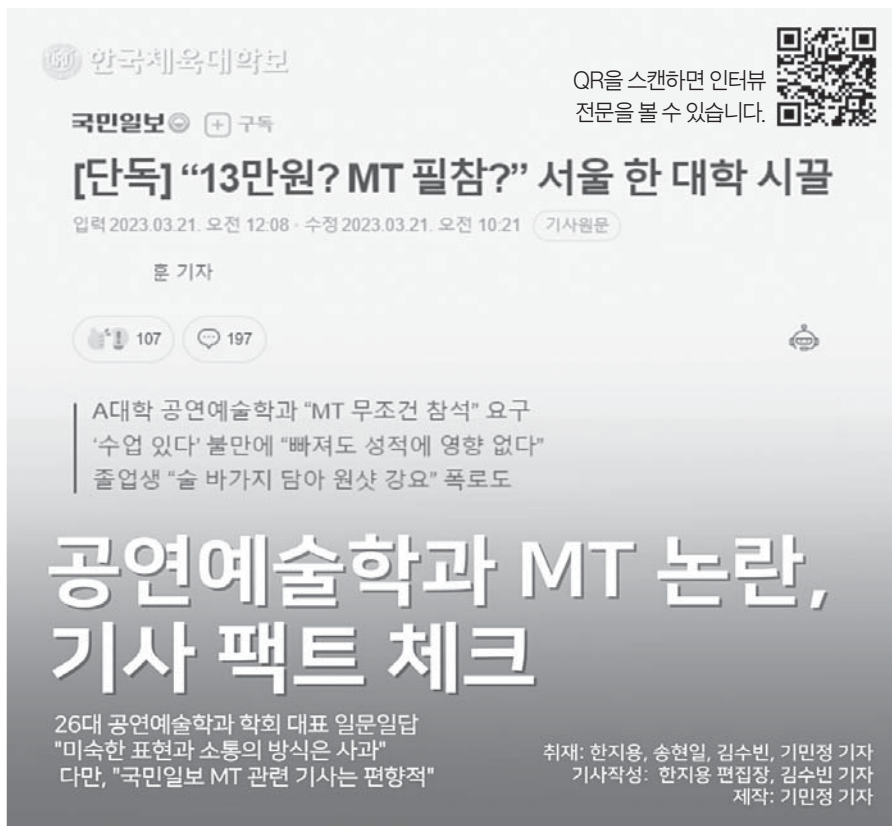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며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성조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있으면서 신축도서관의 첫 삼을 뜯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내빈으로 참여한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체육대학교의 기념비적인 도서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했다. 이어 “신축도서관에서 미래의 현실을 미리 앞당겨 보는 멋진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축사를 마쳤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림픽과 같은 주요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공헌을 한 한국체육대학교에 개관된 신축도서관은 앞으로 더 찬란한 미래로 발전될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도서관 개관에 땀 흘린 학내구성원과 내빈들이 도서관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식으로 신축도서관의 문을 열었으며, 박채희 학술정보원장이 도서관을 소개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박정운 수습기자 junung88@naver.com

기사 하나가 쏘아올린 작은 공, 진실은 어디를 가리키나



지난 3월 21일 기성 언론 ‘국민일보’에서 익명의 대학 공연예술학과 MT 논란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단독] “13만원? MT 필참?” 서울 한 대학 시끌’이었다. 13만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MT 비용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강요했다는 것이 기사의 화두였다. 이러한 논란을 담은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글이 게재되었으나 학과 측에서 삭제해 중용했다는 사실이 적혀있기도 했다. 또한 학과 교수에게 불참의 뜻을 밝혔다가 무조건 참여하라는 강압적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비용 논란과 MT 단체복 강요 등의 내용도 있었다. 본보는 해당 학과가 본교 공연예술학과인 것을 인지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나섰다.

3월 22일, 본보 구성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체육대학교 26대 공연예술학과 학생회 대표 및 관계자를 만났다. 손채연 학생회장(공연예술 21)은 인터뷰에 앞서 “미숙한 소통과 운영으로 불편함을 드려 공연예술학과 학우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논란의 원인이 학생회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국민일보에 게시된 기사는 억측이 많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기사 내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MT 무조

건 참석’ 요구와 관련해 손 회장은 “필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요가 아닌 단합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소통 방식의 문제가 있던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참 시 교수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 역시 사실이나 단지 말씀을 드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압에 의해 참여 여부를 변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는 점 역시 인정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다만, 금액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MT 비용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은 “MT를 3일 앞둔 지금(3월 21일)까지도 학생회비를 걷지 않았는데 왜 그런 내용이 실렸는지 의문입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단체복 강요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손 회장은 “단체복은 MT뿐만 아니라 외부 공연, 학과 행사, 대회 진행 때 소속감을 고취 및 단합 목적으로 제작했습니다.”라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공연예술학과 박영서 조교 역시 “체육학과와 태권도 학과는 단체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과를 포함해 모두 대회

등 외부 행사가 많은 학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옷을 제작하지 않은 학생도 분명히 있다”며 MT 단체복 강요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일보 기사에는 ‘교수의 강압적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예술학과 학과장 백현순 교수는 “상식에 맞지 않은 강제를 한 적도, 가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외 공연예술학과 학생회장단, 조교, 백 교수의 자세한 인터뷰 전문은 QR코드에 연결된 한국체육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학보사는 공연예술학과 관계자를 만났다. 이후 국민일보 기사의 제보자 등 공연예술학과 관계자와 반대 입장을 가진 학우들과 접촉했다. 그러나 취재 섭외 과정에서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본보 SNS 계정을 통해 제보를 받고자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공연예술학과 학우 130여 명은 지난 3월 24~25일 이틀간 정상적으로 MT에 참여했다. MT 직후 손채연 회장은 “단 4명뿐인 학생회 인원으로 130여 명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매우 컸고 국민일보 기사가 올라오는 등 매우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라도 이 악물고 버텨준 학생회 임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라며 함께한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MT의 분위기도 좋았다고 밝혔다. 비단 손 회장의 의견만이 아니다.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공연예술학과 MT와 관련 글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다’, ‘공연예술학과 답게 볼거리가 넘치는 MT였다’, ‘학생회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좋은 기회를 해주어 고맙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에 손 회장은 “열심히 준비한 MT를 너무 잘 즐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MT에 참여한 공연예술학과 학우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본보 편집장은 논란의 기사를 작성한 국민일보 K기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했다. 그러나 K기자는 메일을 읽었음에도 끝내 답장하지 않았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

김수빈 기자 honeysu72@naver.com

기민정 기자bizarre_jade_stay@naver.com

송현일 수습기자 cllick21@naver.com

하나 된 학교를 향해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3월 20일,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4층에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제4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정기회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단위별 보고사항, 논의 안건,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이루어진 의결 기구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에 소속된 각 부서를 운영하는 기구다. 올해 처음 신설되어 활동하고 있다.

논의 안건에서는 지난 3차 정기회의에서 발의됐던 학생회칙 개정 TF 팀(이하 ‘TF 팀’)의 인원 심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TF 팀에는 총학생회 지대웅 교육정책국장(사회체육 19) 등 13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원은 전체 10개 학과에서 선발된 1명과 총학생회 교육정책국 소속 3인으로 구성되었다. 지대웅 국장은 “현재 TF 팀 창설 후 개정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중운위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5월 중운위 정기회의 전에 개정안을 마무리해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말하며 TF 팀 운영 계획 방향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학생회칙은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분량 및 상세한 내용이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학생회칙은 6장이나 한국의국어대학교의 총학생회칙은 58장으로 분량 차이가 크다. 지 국장은 “모자란 부분을 제대로 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1학기 행사 계획에 대한 안제가 있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행사계획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행사로는 교내 문화 교류 사업이 있다. 3월에는 테니스, 4월에는 사격, 5월에는 수영

이 준비되어 있다. 멘토·멘티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멘토는 체육학과 특정 종목 학우들이 생활체육대학 멘티에게 운동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의 특징으로는 AT(Athletic Trainer, 선수 트레이너) 요소를 접합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AT를 꿈꾸는 학우들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집행위원회는 추진 중이다.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육학과 학우들과 타과 학우들의 교류가 이어지고 단합력을 키우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교가 하나 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는 5월 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김경준 체육문화국장(스포츠산업 21)은 “중간고사와 학업 등으로 지친 학우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라며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해 대부분의 경기가 하키장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경기가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경준 국장은 “지난 해, 하키장보다 대운동장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변화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도움을 준 여러 동아리 학우분께 감사 표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우 여러분이 단합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체육문화국이 기획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제5차 정기회의는 당초 4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간고사 기간임을 고려해 5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권규태 기자 kgt120299@gmail.com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

한국체육대학교 제7대 총장 안용규 박사 이임

“평생 체육계를 위해 봉사할 것”



한국체육대학교 안용규 총장이 2019년 3월에 시작된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한국체육대학교는 20일 오전 10시 제7대 총장 안용규 박사의 이임식을 합동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교직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임식은 업적 소개, 내빈 축사, 안용규 총장 이임사, 공로패 증정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안용규 총장은 본교 2회 졸업생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석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를 졸업하고 1996년 본교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기획실장, 대학원장 등 교내 보직을 거치며 행정력을 쌓았다.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 및 감독, MBC 스포츠 해설위원 등을 역임하고 국내외 각종 태권도 대회 개최,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고문 등을 맡아 태권도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금껏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쓰셨던 것 럼 앞으로도 한국 체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며 안 총장의 이임을 축하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안용규 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고 지난 4년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라며 한국체육대학교와 안용규 총장의 미래를 응원했다.

안용규 총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간 함께한 모든 한국체대 구성원에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대면할 기회가 매우 적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저는 총장직에서 내려오더라도 여전히 체육인일 것이며 눈을 감는 그날까지 체육계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며 후임 총장과 학교가 원한다면 반드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차기 총장으로 당선된 문원재 총장의 취임식은 날짜 미정이다. 국립 대학교 특성상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원재 신임 총장 임명 전까지 박호근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 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